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03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1. 4. 30(금) 14:00~18:20
- 장 소 : 화상회의(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회의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오늘 회의도 조금 복잡합니다. 6개의 의결안건과 11개의 보고안건 그리고 논의사항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미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서를 활용해서 회의의 운영을 강화하고 절차를 당겨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전 의견서에 대해 안건보고자가 답변하고 그 외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회의 진행 방식의 정착과 효율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안건 중에는 국회지정사업 관련해서 해당 단체의 실무자들이 직접 자리해서 보고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회의와 실무자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오후 3시와 3시 30분에 각각 보고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의결안건 논의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여 1시간 내로 의결사항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지정사업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고 이어서 의결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위원회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 12인 모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전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차(前次)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는 회의자료 3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98차 전체회의에서는 1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원안의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4월 한 달간 총 4회의 서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제299차 서면회의는 2개의 의결안건이 모두 원안의결 되었고 제300차 서면회의의 의결안건 1건과 제

301차 2건의 의결사항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02차 서면회의의 안건이었던 2021년 민간소공연장 지원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문제가 제기된 해당 단체를 제외하고 지원결정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직무대행이 전차(前次) 회의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지금부터 의결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입니다. 본 의결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본 의결안건은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사전의견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3차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건은 총 2가지 사유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증액을 시도하여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70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이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용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리금이 상환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금을 수납할 수 있는 과목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의 수혜자로 당초 242만 명을 생각했었는데 경제적 여건으로 262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발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70억 정도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기재부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을 헐어서 쓰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기금의 여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협의가 되어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기금을 추가로 전입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항에 보시면 민간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6억 정도가 회수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계정과목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종열 위원님께서 사전의견서를 주셨는데요.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매년 수혜자가 늘어나고 초과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사업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장르 간의 불균형이나 장기간 예산의 안정적 수급도 고민해야 한다.”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 계속하여 복권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류재수 부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서 사전의견서로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께서 사전의견으로 내 주신 것은 예술진흥과 문예진흥이라고 하는 면에서의 창작향유지원의 균형문제라든가 창작의 강화 등도 두루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중장기적 예산 운영을 해야 할 때 저희가 원칙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요.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온라인 회의라서 제가 의사확인을 하는데 있어 어렵기 때문에 재차 삼차 묻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반대가 없으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첫 번째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은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심의결과입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아동청소년 예술활성화 지원공모 계획(안)이 있었으나 공모계획에 대한 논의의 효율을 고려해서 의결안의 가장 뒤로 변경을 했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먼저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1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지원심의 결과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위원님들께서 총 50건에 대한 쇼케이스 결정을 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창작뮤지컬에 (주)바움의 헤시테그라는 작품이 감사실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추가 결정이 되어서 총 51건을 이번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19쪽에 총 지원예산은 19억 4,200만 원이고요. 분야별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등 5개 장르가 이번 심의대상 사업이었습니다. 심의위원제도는 전담심의위원제도로 운영이 되었고 심의위원은 분야별 7인씩 해서 35인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심의는 창작뮤지컬과 연극은 낭독형으로 CJ아지트 대학로에서 진행이 되고요. 실연형으로 무용,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분야는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결과는 21쪽을 보시면 총 22건에 19억 2,900만 원이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각 분야별 지원결정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잔여예산 1,3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예산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향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극분야에서 선정된 단체 중에 공놀이클럽의 '다이달로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등으로 선정은 되었는데요. 이 작품이

창작과 비평에서 발행된 이희영 작가의 원작소설 ‘페인트’라는 작품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갖고 왔습니다. 인물설정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 원저작자와의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번 위원회 의결 때 “저작권 협의기간을 결과발표일로부터 한 달 이내인 2021년 6월 4일까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지원을 한다.”라는 조건부 결정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6월 4일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연극 분야의 예비 선정단체인 극단 명작옥수수밭의 최원종의 작품이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창작오페라 신청액대비 결정액의 비율에 대해 큰 차이가 있고 정해진 총액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부실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페라의 경우에는 2억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원금 외에도 일정 정도의 자부담이 각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충’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500만 원 정도고 ‘시간 거미줄’같은 경우에는 8,9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내용으로는 “무용,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분야가 군포예술회관에서 진행돼서 단체들의 불편함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원래는 저희가 은평문예회관에서 해당 심의를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질병통제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군포문예회관에서 진행이 되었고 모든 분야별 공통된 조건 안에서 진행이 돼서 큰 불편함 없이 진행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서에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회의자료를 제공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의결사항은 심의결과를 의결하는 내용이라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요.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다수의 동의를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시는데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므로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지원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2차년도) 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전의견서를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3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오작교프로젝트(1차년도) 지원심의 결과가 2019년 12월 23일에 총 7건이 결정되었고요. 그 가운데 당초 1차년도 7개 단체 중에 ‘그랜드필하모니’ 단체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심의는 6건이 심의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 2인을 전곡 작곡가로 위촉한 민간 및 공립 오케스트라가 함께 이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원 규모는 1개 단체 당 약 1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작품위촉비나 오케스트라 연주지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지원 예산은 6억 원입니다.

38쪽입니다.

역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은 적격자 지정방식으로 되었고요. 심의위원은 총 5인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2차 년도 연속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1년차 심의위원 중 추천인사 2인이 참여를 하시고 신규 심의위원 3인으로 해서 총 5인을 구성하여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4월 4일에 진행되었고 심의방식은 지원대상자의 PT 및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지원결정현황이 있는데요. 총 6건이 지원결정이 되었고 규모는 5억 3,9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잔여예산 6,100만 원은 잔여예산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의결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종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2차 년도 연속지원 사업이기는 하나 비합리적인 사례비 심의총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현재 작년도 저희 사업혁신TF를 통해서 사전제작지원, 예산의 적정성, 아티스트 사례비 등 여러 가지 논의사항들을 위원님과 함께 결정해서 저희가 다음 정시공모 전까지는 반드시 사업개선 계획 등을 세부화시켜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서에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부장님, 오작교프로젝트와 2차년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오작교프로젝트 1차년도 사업은 작곡가가 작곡을 하는 것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곡되어진 곡이 곡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2차년도에는 오케스트라 단체와 매칭을 통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의 규모를 통해서 해당연도에 공연이 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종열 위원님께서 사전에 주신 의견들은 사업의 내용적 강화의 방향을 잡아달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 실무 쪽의 검토가 있으시면 그것도 아울러 보강을 해 주십시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지금 현재 전년도 사업혁신TF, 사전제작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단순히 곡으로 남는 게 아니라 공연화 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방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2022년도 정시공모에 태우기 위해서는 음악위원님과 세부적으로 공모요강에 들어갈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티스트 피라든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중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계속해서 해당사업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담당부장의 설명이 추가로 있었는데요. 본 안건도 지원사업이고 2차년도 사업이라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다수의 동의가 있었어요. 추가의견이 없으시죠? 추가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모두 찬성을 하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네 번째 의결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역시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전의견서를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4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지원심의 계획이 2021년 4월 8일에 수립이 되었고, 심의대상건수는 총 24건입니다.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첫해연도에는 작곡가와 작가가 함께 매칭이 돼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건수는 5건에 1억으로 각 단체별 2,000만 원씩 지원이 결정되었는데요. 지원대상은 작곡가 1인 및 극작가 1인으로 구성된 팀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고요. 지원의 내용들은 연구, 조사 및 사전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팀당 지원금은 2,000만 원입니다. 지원심의는 심의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담심의위원제도를 통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원심의결정 현황은 총 5건에 1억 원이 결정되었고 2,000만 원씩 5건이 결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의견을 주신 사항이 없는데요.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부장의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서에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정숙 위원님께서 발언 하시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좀 지역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남녀의 비율에서 여성이 2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가 안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전문가 중에 여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성비나 지역별, 연령별 현황을 고려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문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참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성 비율이 낮게 편성이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회가 성별, 연령별 혹은 지역별 안배가 6기와 7기를 이어오면서 심의위원을 구성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지역비라든가 성비, 연령비 등을 완벽하게 못 맞추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등은 필요해 보입니다.

정정숙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 점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섯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구생 주관 워크숍 지원심의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전의견서를 포함하여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2021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구생 주관 워크숍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참여 예술가 간의 자율적 협업

을 활성화하고 참여 예술가 간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차세대 예술가의 창작 소재 확장 및 협업 파트너 발굴을 유도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역대 참여 예술가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참여 예술가들의 자율적 협업을 바탕으로 한 워크숍,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분야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 간 총 지원신청 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원심의회는 6인의 심의위원들께서 수고를 해 주셨고요. 지원심의회 회의는 4월 27일 화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34건에 신청액은 총 3억 3,000만 원이었고 예산이 5,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원선정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결과는 56페이지의 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종열 위원님께서 지원신청건수에 비해서 선정건수가 다소 적어보이며 차후 배정액을 조정해서 조금 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인데요.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소액다건이라도 수혜의 범위를 키울 수 없느냐?”라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답하면 질문과 답변이 어울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수월성을 바탕으로 한 창작활동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연구생들 간의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한 과정 지향적인 워크숍이기 때문에 단가를 1,000만 원 이상으로 증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연구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창작아카데미가 끝나면 연구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종열 위원님 답변이 되었나요?

정종열 위원 : 원래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그렇고 앞의 창작오페라도 그렇고 1인당 항상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사실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예술가들은 굳이 1,0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정도로 할지라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궁금해서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 700만 원으로만 해도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의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으니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서에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방금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뽑힌 분들이 5인이고 그분들에

계는 모두 1,000만 원씩 일괄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원금액을 상대적으로 조정해서 선정되는 분들을 조금 더 늘리자는 것 같거든요.

정중열 위원 : 예, 맞습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이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다시 심의위원들에게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양을 늘리도록 조정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저희가 다시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정중열 위원 :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 것은 그대로 하고 추후 1,000만 원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었습시다.

박종관 위원장 :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당장 이번 의결에 적용하지는 못 하더라도 향후 동일한 사업이 있을 때 탄력적 운영을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의견이 없으시면 논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전원이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해서 안건번호 873호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과 안건번호 제 875호 2021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지원심의 결정의 건, 안건번호 876호 2021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2차년도) 지원심의 결정의 건, 안건번호 877호 201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 안건번호 878호 2021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구생 주관 워크숍 지원심의 결과까지 의결사항을 소화했습니다. 나머지 1개의 의결사항인 제 874호 2021년도 아동청소년 예술 활성화 지원 공모계획(안)과 관련하여 이종국 지원총괄부장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내 주신 사전의견서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안녕하십니까? 지원총괄부장 이종국입니다. 저희부서가 3월부터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신규사업인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활성화 지원 공모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수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화 통화나 직접 메일로 주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렸던 내용 대비 수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 사업혁신TF자료에서도 그렇고 아동청소년 예술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가다보니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혼선이

온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2페이지와 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논의에서도 어떤 때는 향유가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창작의 주체가 되는 등 사업방향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아동청소년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과 사업목적을 최종적으로 수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세부유형은 ①, ② 2가지로 나뉘지는데요. 그 내용들이 2페이지와 3페이지의 논의들을 거쳐 4페이지에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메일로 보내드렸던 자료는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화요일에 보내드렸던 자료에는 작성 중인 상태라 빠진 상태였는데요. 각 장르별 사업 특성을 반영한 것이 중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총액이 5억인 사업이지만 올해 신규로 되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겠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장르에 있는 용어들이라든지 실제 공연 쪽에서는 쇼케이스가 일반적이지만 문학이나 시각에서는 그것을 대체할만한 다른 기준으로 무엇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담았고요. 혹시 오늘 그 과정에서 이런 용어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제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 6인의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해 주셔서 사전검토 의견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63페이지에 있는 운영체계에 있는 표와 함께 붙임자료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74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다원예술분야의 앵커조직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다원 예술은 지원심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선정이 된 이후에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영구용역보고서를 공연예술분야 중심으로 했던 것처럼 이 사업은 선정이후가 본 게임이라는 겁니다. 선정된 후에 사전아이디어 등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방점을 뒀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쪽에서 제시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그룹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원금의 교부정산은 예술위가 담당해야 하는 행정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맞고요. 이것을 저희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소 6번 이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배경과 효과에 대해서 박경주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해를 못 하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4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직접 제가 작년에 설계를 해서 효과를 본 것인데요. 대관료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방식 변경에 대한 효과 내용입니다. 실제 60억 8,000만원의 사업예산 대비 크다면 클 수가 있는데 1.67%의 운영비를 들여서 예술가 그리고 예술가단체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 하고 본인들의 예술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다른 사업들로 관리하는 단계가 총 11단계라고 하면 이것은 2단계로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5페이지를 보시면 이 대관료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4년부터 2019년도에 운영되었던 사업대비 2020년도에 이렇게 바꾸었더니 어떻게 반응이 있느냐? 실제로 86.2%가 이 방식으로 바뀐 것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문항의 구조 설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제한적이지만 2020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비 거의 10점정도 이상을 상회

하는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실제 이렇게 간소화된 방식과 행정 처리 방식의 개선효과에 대해서 실제로 예술가들이 반응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원문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76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원래 오늘 날짜로 기획재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게 될 고객만족도 결과의 PPT자료 그대로를 캡처 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초다양성 증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우리 기관에서 고객만족도,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e나라도움 개선, 정산프로세스 관리 간소화를 통해 이용편리성을 제고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시급하게 우리 기관이 가장 먼저 개선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 이 정도에 대한 고민 하에 제안을 드린 것이지 위원회 사무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행정업무를 예술가들에게 떠넘긴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원예술은 왜 빠졌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원예술 리부트 사업이 현재 공모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소액다건 형태로 지금 이 사업과 동시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배제된 것이 아니라 지금 2개 사업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신청 유형이라든지 구분이 안 돼서 다원예술을 제외한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부장님 지금 이것을 총괄해서 요약하자면 “퍼실리테이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있는가?”라는 쟁점과 “24세 이하 우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한 분이 사전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쓰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축약을 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원예술을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이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개 장르 이상이 복합된 형태로 하는 것을 열어놓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 24세와 관련된 이슈는 사실상 이게 전통예술, 무용, 음악 쪽에서 사업초창기에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면의견을 주신 사항으로는 일단 창작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받았고 저희도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사업대상 자체를 아동청소년으로 했을 때 “도대체 청소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홍태림 위원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청소년보호법, 정보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각각의 나이대가 다 다른데 저희는 가장 연령대가 높은 만 24세까지를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예술가들께서도 대상을 설정할 때 “도대체 청소년이 어디까지인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들로 했고요. 필요하면 법령 근거 자체를 기재하는 것도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홍태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문 간담회를 할 때도 “심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창작산실이 2,000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 쇼케이스 대상을 선정할 때 서면심사 그리고

인터뷰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저희 쪽은 서면심사만으로 2,500만 원, 2,000만 원이 선정되는 게 타당한 것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상반기 안에 2개의 공모사업을 동시에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인터뷰심사까지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했고 실제 이것은 아동청소년 관련된 전문가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꼭 인터뷰심사가 진행되지 않아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제 이 사업은 선정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점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퍼실리테이터 문제와 24세 이하 우대 문제, 심사방식의 타당성 그리고 이시백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장르안배와 관련해서 다소 폭이 넓은 사전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서로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혹은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2021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다원예술을 복원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보다 좋은 양질의 지원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전례가 있는 것 같이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의욕을 보이고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적당한 시기에 공고를 내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한시적인 범위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논의를 효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저는 이종국 부장님이 준비하신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공연장대 관료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빨리 그것을 교부해야 하고 현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동의를 했던 상황을 기억하는데요. 지금 제가 고민을 하는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기금이 재교부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과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이라도 신중하게, 그것이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이렇게 해서 편리하고 행정적으로..... 사실 기금이 한 단체에 갔다가 재교부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우려점이 있느냐 하면, 대관료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협회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기금들이 재교부될 때는 공동명의로 통장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시스템이 있거나 기금이 잘 관리되고 별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보조적인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 기관의 기본적인 업무가 기금을 관리하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교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e나라도움으로 인하여 예술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이 대안적인 것으로 괜찮다고 합의가 된다면 저는 이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다원예술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복합장르’ 앞에 그냥 다원을 하나 넣어서 ‘다원·복합장르’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이 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그것은 더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넣었던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내부 검토를 했고 제외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6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및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보완되면서 가장 컸던 게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원신청을 하는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이 예술향유지원, 기술융합기반의 창작, 예술교육, 국제교류, 예술인력 육성.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장기창작지원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유란 위원님께서도 전문가 간담회를 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동청소년 사업만 별도로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의 전체 창작지원 체계 안에서 원로지원사업이 따로 있듯이 아동청소년부터 원로까지..... 그 내용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퍼실리테이터 문제에 대해서는 박경주 위원님이 정리를 하신 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의 쟁점이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받는데요. 다만, 다원을 ‘복합장르’ 앞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부장이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세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이종국 부장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원분야가 당연히 복합장르로 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같을 것으로 생각해서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이미 정리한 대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행정교부에 대한 것을 사무처가 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재교부사업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업이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직접 쓰는 돈 플러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결국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 모두가 e나라도움에 등록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재교부사업에 해당되는 유형①의 부분도 등록을 할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타당성을 충분히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박경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원’ 삽입 문제에 대해서 실무가 타당한 만큼 의견을 제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없습니까?

홍대림 위원 : 중간매개조직 관련해서는 원래 다원예술 사업을 리부트 할 때도 한번 검토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다원예술 리부트 할 때도 중간매개조직을 한번 실험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술현장에서 효능감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매개조직과 관련된 내용들이 빠지고 간략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서 못 하기는 했습니다. 이번 아동청소년 예술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중간매개조직을 통해 지원사업을 굴러보는 것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많은 고민을 해서 타당성을 갖고 근거를 갖고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저희가 잘 밀어서 어떻게 되는지 잘 검토하고 이후에 괜찮다면 다른 사업에서도 해 볼 수 있는 사업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정도로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4세 이하 우대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박경주 위원 : “우대로 꼭 표기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 의견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이견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의견도 있기때문에 위원회에서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의견을 드리면 지금의 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흥태림 위원의 의견과 비슷한데요. 다만, 퍼실리테이팅이나 모더레이팅 그리고 이후 이 사업의 현장에 대한 네트워킹은 다른 거라서 그것은 조금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쉬여 있는 것 같고요. 그냥 퍼실리테이팅을 하는 거라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 사업의 지속성, 장기성을 놓고 모더레이터나 네트워킹을 생각하는 거라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통과를 하기 조금..... 설계를 조금 더 해서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의 타당성 문제라든가 장르 안배와 관련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시다만, 올해 사업에 반영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퍼실리테이팅과 모더레이팅 관련한 부분은 완전히 숙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세 이하 우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의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여기까지 논의를 하신 걸로 하고 24세 이하 우대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박경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얘기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의 의견만 더 들겠습니다.

정유란 위원 : 저는 다시 주신 수정안을 받아봤을 때 만 24세 아동청소년 우대와 관련해서 이미 수정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거네요? 그러면 이원재 위원님 퍼실리테이팅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원재 위원 : 오늘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요. 진행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점검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와 있다고 보는데요. 반대하시거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저도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예술인들이 정산 등의 과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은 현장소위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은 교부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에 비해서 전체 금액은 적지만 잘 돼서 애로사항이 별로 없도록 이후에 수정될 수 있다면, 저희 위원회 안에서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들과

반영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보낸 수정(안)이 원안인데요.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찬성을 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 보고안건으로 들어갈 텐데요. 사무처장 직무대행께서는 보고안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지금 국회지정교부사업에 대한 보고 2건을 비롯해서 총 11건의 보고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국회지정교부사업 2건에 대한 사업관련 실무자가 와 계시니까 먼저 보고를 받고 순서대로 논의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국회지정교부사업으로 대구국제음악제 사업과 관련해서 두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참석한 분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에서 김수정 홍보팀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오신 분은?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조하나 씨와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관 위원장 : 예, 어서오십시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위원장님, 일단 국회지정교부사업에 대한 공연예술부의 검토의견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사업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7차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2021년 국회지정교부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국회지정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들을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내용을 저희가 듣고 그 내용들을 추후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최종 정리하고 위원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국제음악제는 가제이지만 ‘대구-유네스코 음악제’로 현재 신청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사업기간은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실질적인 사업기간을 보시면 사전 프린지 콘서트가 9월부터 10월. 그 다음에 오페라 갈라콘서트 및 포럼이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4주년 음악회가 2021년 11월 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관기관은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고 사업예산은 3억 3,000만 원인데 그 가운데 문예기금이 3억 원, 지자체가 3,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장소는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대구문화예술회관 외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사무처가 이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진행했을 때는 기금사업의 적합성이나 기금집행의 적정성, 성과관리 환류방안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었고 일부 내용들이 수정되었습니다. 다만, 저작권과 같은 경우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공연실황 및 연습장면 영상화, 녹음영상물의 복제 및 배포권 등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재단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영리공연의 목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복제, 전송,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특정한 권한 정도를 갖고 위원회 사무처에서 수정해서 내용들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구오페라하우스 김수정 홍보팀장님을 통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김수정 홍보팀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대략 10분 이내에 간략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안녕하십니까? 대구오페라하우스 홍보마케팅 팀장 김수정입니다. 저희 사업은 사업명이 대구-유네스코 음악제고요. 사업기간은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이 확정되는 5월부터 12월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공연과 포럼, 콘서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대구오페라하우스 인근의 컨벤션센터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주체주관은 대구광역시와 재단법인 대구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가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대구시의 출연기관입니다. 잠시 뒤에 단체소개 항목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추진배경은 대구시가 2017년도 10월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음악분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지정 4주년이 되었는데 4주년을 맞아서 국제규모의 공연예술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음악창의도시 지정의 의미를 더한다는 의미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것, 또 시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재단법인인데요. 이 사업의 주관기관이 된 것이 2003년도 개관 이래 올해로 18회째 국제오페라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축제가 열리는 기간과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이 겹침으로써 개최효과가 상승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축제진행이나 여러 가지 홍보 등의 경험치가 축적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이 기간에 별도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지털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때 해외 창의도시 관계자들이 50명 정도 참석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공연예술의 매력이나 활기를 충분히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주제는 연결입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2020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면서 단절이나 고립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상 우리는 해법을 온라인에서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극장이나 아티스트, 관객 그리고 예술작품 간 연결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페라는 대표적인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여러 장르의 예술이 합쳐져 있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 성공적인 오페라 무대는 사실상 성공적인 네트워크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을 잘 진행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에 연결이라든지 예술활동과 시민의 연결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3억 3,000만 원이고 국비 3억 원에 대구시비가 3,000만 원이 매칭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일정을 4페이지에 적었지만 사실은 11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럼입니다. 오페라와 미래포럼이며 11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시작해서 4시간 정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인근에 있는 컨벤션센터를 빌려서 진행할 계획이고 발표자, 토론자, 청중까지 포함해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오페라극장의 미래에 대해서 유럽, 아시아 그리고 미주지역의 극장장들과 감독님들 중심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세션을 2가지로 구분했는데 먼저 첫 번째 세션은 “코로나시대에 유럽이나 아시아의 극장들이 어떻게 견디고 생존을 하였는가?”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세션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일부는 발제자를 섭외한 상황이고 일부는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자는 현재 이탈리아 볼로냐극장의 극장장이 유럽 상황을 말씀하실 거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의 가오슝오페라극장의 극장장, 미주지역에서는 애틀란타오페라컴퍼니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김수정 홍보팀장님, 매우 송구한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나누어 받았습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축약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발언을 끊어서 매우 송구합니다만, 정정숙 위원님께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위촉된 위원으로 국회지정교부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간단한 설명이 요구되고요. 다시 말하면 국회가 지정한 교부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예술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심의하는 것도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사업 내용은 이미 보내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는 우리 예술위 사무처에서 간단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정숙 위원님, 저희가 김수정 홍보팀장 등 국회지정사업의 담당자를 놓고 이런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본부장이 정말 짧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국회지정사업은 일명 쪽지사업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현장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인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내역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사업을 거의 집어넣다시피 해서 한 부분 때문에 예술현장에서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등을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6기 위원회부터 얘기가 되다가 결론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가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집행단계에서부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집어넣어서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후에 제가 정정숙 위원님께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추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김수정 홍보팀장님의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축약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받는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행사가 국제규모인데 사실상 팬데믹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포럼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은 날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갈라콘서트는 기본적으로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반주를 하고 지휘자를 위촉하거나 솔리스트들을 해외에서 접촉 중에 있고 일부는 접촉이 완료되어서 서로 간에 계약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럼과 갈라콘서트를 하기 전에..... 저희가 오페라축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축제의 홍보와 맥을 같이 해서 프린지 콘서트를 대구 전역에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올해 오페라 프린지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성악 중심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브라스밴드로 해서 조금 더 활기를 줄 수 있는, 지금 대구의 상황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만 공연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활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국제음악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두 분께서 사전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홍승욱 부장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지금 현재 정종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평가와 사업 환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무처가 4월말까지 긴급한 공모사업 절차를 끝내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 평가 등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제가 조금 보태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인 플랜B에 대한 설명 등이 다소 아쉬웠다는 지적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정종열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중에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오페라축제와 더불어 대구-유네스코 음악제를 진행하는 계획으로 해외 유명 오페라 관련 예술인을 초청하여 의미 있는 포럼을 한다는 것과 대구를 미래음악도시로 홍보하려는 의도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축제 기간에 중복적인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여는 것과 코로나로 인해 플랜B가 될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포럼.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제가 요약했으니 다시 요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부족하다면 정종열 위원께서 조금 더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시고 김수정 홍보팀장님이 답변을 직접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죠.

정종열 위원 : 다른 분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그냥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것들은 행해질 텐데요. 포럼에서 만약 플랜B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될지가 감이 안 잡힙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을 때 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 이 주제가 우리한테 정말 의미가 있고 좋다고 하면 유튜브나 여러 가지 스트리밍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의미를 다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프린지 콘서트라고 해서 여러 곳에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요. 다른 음악제에서도 프린지 콘서트 같은 것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부수적으로 된다는

지 굉장히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대구라는 도시가 음악적인 역량이 있는 도시니까 프린지 콘서트를 할 때 조금 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정말 음악적인 축제의 분위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프린지 콘서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 진행했던 경험도 있고 대구에는 4개의 음악대학이 있습니다. 음악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과 함께 브라스앙상블을 구성하여 진행할 계획이라서 기존의 프린지 콘서트와는 조금 차별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플랜B의 경우에는 포럼 같은 경우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관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로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열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원재 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원재 위원입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은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리가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해서 국회예산, 저희가 국회지정사업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조금 더 예산집행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예술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어렵게 만든 자리입니다.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기존에 외부에서 국회와 관련해서 쪽지예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셔서 본 사업이 조금 더 투명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정종열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프린지 콘서트 같은 경우 여러 다양한 예술인들과 협력적인 작업을 공개적으로 해 주시면 아무래도 예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행사도 의미 있고 예산집행에서도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알겠습니다. 귀하께 마련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유네스코 음악제는 몇 번째인가요?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유네스코 음악제는 올해 첫 행사입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이 직접 운영을 했는데 올해로 18회째가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2개 축제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국제오페라축제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20억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네스코 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된지 올해가 4년째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 전에는 없었나요?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고필 위원 : 전고필 위원입니다. 사실 밖으로 돌아서 얘기를 하는데 돌지 않고 직접 말씀을 드린다면 수많은 예술가단체들이 열망하는 예술위원회 지원트랙이 있는데요. 그 트랙을 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공정한 트랙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태도들에 대해서는 한번 자성을 해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그리고 공식적인 트랙을 만들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트랙이 없게 하는 게 향후 저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기왕 어려운 걸음을 하셨고 힘들게 하셨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시기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는데 아무도 이 말씀은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인 트랙을 통해서 지원사업들을 가져가시면 훨씬 더 돈보이고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고필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전고필 위원 : 끝났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대구가 지금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죠?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대구오페라축제는 저희가 지방이양을 하기 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한 지원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예진흥기금은 절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위해서 쓰여지는 최후의 버팀목 같은 소중한 돈입니다. 잘 사용해서 좋은 사업으로 풀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대구에서 예술가의 집까지 직접 참석을 해 주시고 오늘 질의 중에는 홍보팀장님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도 크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요. 보다 좋은 양질의 사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과 더불어 귀한 시간을 허용해서 오

늘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행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같이 오신 분은 누구신가요? 소개를 해 주세요.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예, 저희 팀의 조하나 담당자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홍보팀장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국회지정교부사업의 사업계획보고는 어반브레이크입니다. 국제교류부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보고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오늘 사업수행단체의 대표자께서 배석을 해 주셨고요. 어반브레이크2021 행사의 주관 맡게 된 단체의 대표자인 장원철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을 주신 것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부연설명은 대표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반브레이크2021 사업 개요고요. 이 사업은 신규로 이번에 지정된 사업은 아니고 2018년도부터 국회지정사업으로 수행되어 왔고 계속해서 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왔다가 올해는 1억 원으로 감액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코엑스 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대미술의 확장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반컨템포러리 아트를 위한 아트페어를 통해서 미술시장의 다양성 추구 및 젊은 컬렉터를 위한 교류 플랫폼 생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간 구성을 통한 본 전시와

함께 유튜브라이브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부대행사까지 아울러서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국내외 협력기관을 통해서 네트워킹 자리까지 운영할 생각입니다. (2)번 이하로 나온 부분은 저희 사무처와 3주 이상에 걸쳐서 서로 협의조율을 거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 인건비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 집행 성격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편성된 측면도 있었습지만, 사업 직접경비 대관료라든지 라이브스튜디오 등 직접경비 중심으로 예산을 다시 조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작년도에 전문가 모니터링을 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어반컨템포러리 아트 장르의 차별성 그리고 신진작가 발굴이라든지 국제교류 행사인 만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의 아쉬움 등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이미 조율해서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대로 별첨을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홍태림 위원님께서 사전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어반아트라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협력기관들과 어떤 연계성을 띄는 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목적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계선상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반아트에 대한 미술사적인 정리 등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아트페어가 상업적인 성격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기관들의 공모사업의 트랙을 통해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 보고는 간략하게 마쳤고요. 이어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께서 직접 오셨는데요. 국제교류부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짧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이렇게 참석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반브레이크의 운영위원장을 맡은 장원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반브레이크2021은 기존의 아트페어의 형식을 도용하지만 사실 아트페어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젊은 작가들이 바라보는 문화예술, 미술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새롭게 편성하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이고요. 도시미술, 거리미술 등 스트리트아트라고 대변되고 있는 미술시장이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산업, 다양한 영역들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문화예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파인 아트나 기존 컨템포러리 시장이 아닌 새로운 젊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컨플렉스콘이나 사우스바이 사우스웨스트 같은 다양한 영역들의 콘텐츠가 모여서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데 저희 어반브레이크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세션을 분류하다보니까 아트페어라고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는 부스를 갤러리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미술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고 기존의 미술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젊은 작가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솔로부스를 주고 지원금을 주며 그들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어반브레이크가 코엑스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사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왜 장소가 코엑스였느냐가 저희 스스로 자문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거리프로젝트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젊은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실제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들이 저희가 만들어놓

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컬렉터들과 관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어반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대립 위원 : 제가 사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부장님께서 답변하셔서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사업계획서를 보고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쭙보겠습니다. 어반아트나 스트리트아트가 되었던 이 기조에 따라서 협력기관도 있고 참여하는 갤러리도 있는데요. 협력기관들은 몇 개가 나와 있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도 봤는데 협력기관들은 어반아트나 스트리트아트 등 어떤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협력기관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협력기관이 실제로 갤러리 참여기관에 해당이 하는 것인지도 약간 모호했습니다. 협력기관이 갤러리 참여기관과 다른 것이라면 갤러리 참여기관은 아직 세팅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행사가 7월에 시작할 텐데 작가들을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방향성과 갤러리를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얘기는 기재되어 있지만 그게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갤러리존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요. 일반 어반이나 스트리트아트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존이 35~4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기관 3곳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국제적인 스트리트아트 기관인 파우와우코리아와 저희가 협업을 하기로 해서, 2011년도에 파우와우라는 전세계 스크리트아트의 창작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는 2017년도에 처음 소개가 되었고 2019년도까지 한국에서 축제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파우와우와 어반작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이번에 같이 협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동두천에서 기존 클럽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리뉴얼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과 더불어서 동두천 클럽들의 어반아트와 스트리트아트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협업될 예정입니다. 그런 기관들과의 협업들은 거의 95% 이상 논의가 끝났고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 대해서도 90% 정도의 구성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청하고자 하는 어반이나 스트리트 작가들은 100여명 정도고요. 갤러리들은 35개 정도의 갤러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죠. 어반브레이크는 올해로 몇 해째 행사입니까?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저희가 아트아시아라는 이름으로 1회를 킨텍스에서 시작했구요. 작년에는 3번째로 어반브레이크 아트아시아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3번째로 했구요. 올해는 아트아시아라는 이름을 빼고 어반브레이크2021로 해서 4회차 행사가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행사명은 바뀌었지만 4회차의 이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명확하게 저희의 지향점을 찾아가고 있고 올해의 행사로는 전세계 어반, 스트리트 축제 중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앞선 국회지정사업을 진행하는 분들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예진흥기금은 1972년도에 만들어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고 1974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초예술의 버팀목 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수혜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 돈을 근거로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사업들이 성과를 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한국 예술계를 풍성하게 다듬게 되는데요. 이 사업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정말 좋은 행사를 만드시고 훌륭한 행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은 없나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행사추진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예측되는 범위는 없을까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작년에는 원래 8월 행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11월로 옮겼고요. 그런데 운이 좋게 저희가 옮긴 때가 코로나가 수그러들 때라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고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자마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콘텐츠의 유튜브스튜디오라운지를 꾸미고 있는데요. 미국의 NAB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운지를 꾸려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작가, 참여하는 갤러리, 참여하는 여러 참여자들 본인들이 콘텐츠를 기획해서 오면 저희들은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그 중에 30% 정도는 주최 측이 행사를 기획해서 유튜브라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장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건에 비해서는 작년 행사 같은 경우 천운이 따랐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인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영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한해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류가 이런 큰일을 겪은 지 오래된 일이 작년에 일어난 것인데요. 어반브레이크의 작년 행사는 천운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맞습니다.

이진희 위원 : 저도 행사와 관련된 궁금증인데요. 관련해서 기사나 정보 등을 검색해 보니까 ‘오지라퍼’라고 해서 자원활동가를 모집하는 것을 하고 계시던데요. 여기에서 국회의원 표창장 수여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행사 같은 경우 자원활동가를 모집할 때 표창장을 주는 경우는 약간 이색적인데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저희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 팀별 프로젝트를 냈고 팀 중에서 제일 활동을 잘 했던 팀의 1명에게 수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 내부에 있던 스태프가 전체에게 표창장을 주겠다고 공고를 잘못 올리는 바람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석을 했더니 지역구 의원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선거법상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일 경우에는 가능했는데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팀에게 수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면 말씀하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바쁜 시간을 헐어서 참석해주신 장 대표님께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 좋은 사업으로 성공을 시켜주셔야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실제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고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2개 사업의 질의응답과 사전결과보고를 들었는데 저희끼리 조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오페라 2억 원을 가지고 9,000만 원, 1억 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결국 3위 조차도 지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 3억 원씩 예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부당함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반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행사의 훌륭함과 행사기획의 짜임새와 별개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으니 2개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혹은 같이 타당성 여부와 향후 예산집행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실무 쪽의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부장과 공연예술부장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전고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중한 기금에 무임승차 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들어온 사업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목적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술가와 국민 모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심층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단계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모니터링이나 사업평가 기획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위원장님 결재를 통해서 향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국제교류부장이 의견을 추가해 주십시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무엇보다 소중한 공적 재정인 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세부적인 예상항목별 타당성 그리고 소요예산 규모의 적정성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아까 잠깐 스치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나 간접적 운영경비 중심으로 일부 편성된 측면들을 과감하게 상호 공감을 통해서 대관료 등 최소한 기금사업의 집행의 적정성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항목들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금액에 대한 세부 조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금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고요. 내용적인 부분 또한, 사실 아트페어라는 상업적인 부분에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는 비영리적인 부분을,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그런 부분에 기금이 우선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

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이 돼서 사업계획이 내용적인 정당성을 띄도록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수동적으로 계획서를 접수받고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앞서 3주 이상 협의조율 과정을 통해 계속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이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연예술부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발전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활용되면서 사업 내용도 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두 부장님의 보고를 받았고요. 어찌면 오늘 직접 사업담당자들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 것부터 국회지정사업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6기 위원회 이전부터 제기가 되다가 드디어 2021년도가 되어서야 실질적인 제도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거나 평가관리체계 안에 확실히 집어넣는다거나 평가 이후에 환류과정을 통해서 국회의 자료로 제시한다거나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도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논의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저는 논의는 아니고요. 추후에 송 본부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국회지정교부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애를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가 지정한다고 하는 개념이 국회에서는 과연 투명하게 지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사항은 아닙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국회지정사업 중에서 서울국제무용콩쿠르라고 허영일 대표가 사업의 책임자로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역시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인데 오늘 실무자 또는 대표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간담회 때 일단 실무 쪽의 보고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 예산을 허용한 이후에 정식 보고를 5월 위원회에서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마땅히 오늘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오늘 보고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장인주 위원 :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고를 요청했는데 왜 보고가 안 된 것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실무 쪽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사실 여기에 와서 대표님들이 보고를 하시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 등 실무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답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허영일 교수님은 1차 면담 시에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못 한 것이고요. 행사는 6월 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부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박종관 위원장 : 제가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보고하기 위한 최소 수순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오늘 보고를 하겠다는 요청이 왔는데요. 그러기에는 오늘 회의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회의사안이 모두 정리된 이후 이 사안을 추가로 받기가 어려웠고요. 진작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진행의 수준과 수위가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일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이 발생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위원님들과 상의하고자 합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6월 2일부터 시작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5월 마지막 위원회 일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기획조정부와 얘기를 할 때는 위원장님의 의견도 있으시지만 이번 13일 간담회 때 일단 대표님이 참석하셔서 보고를 하시고 서면으로 의결하면 상당부분..... 지금도 현재 나가고 있어서 집행의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논의 수순을 잡죠. 참고로 국회지정사업의 경우 보고안건입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정정하겠습니다. 13일 간담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는 계획입니다.

이원재 위원 :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의프로세스에 대한 위원회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분들을 초대해서 보고를 받은 이유가 일반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정확하게 3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성과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쪽지예산으로 얘기되던 것을 못 잡다가 저희가 어쨌든 제한적이지만 프로세스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3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후관리고 두 번째는 투명성 강화 세 번째는 내실화입니다. 이 3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인준을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특수한 트랙이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들은 과거 부실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 그리고 조금 더 내실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정운영에서 투명성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지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하는 보고도 안 되는 것은 사후관리 트랙인 것이죠. 그래서 사후관리트랙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판단해서 사후관리에 들어간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 트랙이 아닌 내용적 내실화나 재정운영 투명성에서 소통이 필요한 거면 그것은 실무적으로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위원회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은 일반적인 이 사업에 대한 관성적인 보고를 듣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논의가 필요하다면 논의로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 트랙과 관련해서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간략하게 예전에 보고했던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 사전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성할 때도 기준이 있는데 이런 준칙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사무처에서 먼저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고

그것마저 총괄적으로 위원회에서 스크린 하는 부분이 1차이고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해당분야의 위원님을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계획이 안 세워져 있고 근간의 뼈대는 그때 보고를 드렸듯이 해당분야의 위원님과 전문가와 사무처 일부가 포괄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피드백을 단체에게 다시 주게 될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보기에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의 취지에 관해서는 절대치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고민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안 받고 예산을 집행하자니 위원회에서 의결해 놓은 것은 있고요. 일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6월 초에 진행하는 사업이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과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인주 위원 :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가 진행되면 저를 포함해서 현장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우선 5월 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소액이라도 교부를 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후에 평가할 때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조금 중재를 하자면 간담회 때 약식으로 보고를 받죠. 보고를 받고 일부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정식 보고 등은 5월 정기위원회 때 하시죠. 그렇게 수순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국회지정사업과 관련된 보고는 여기까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 변경 계획(안)인가요?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그렇습니다. 공연예술부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 변경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금일 기재부에서 제15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및 한국판 뉴딜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재부 1차관께서 코로나19 지속 속에서도 1분기 내수시장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외식업과 문화예술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로 이런 안의 방향을 기재부에서 내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을 변경하게 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장인주 위원님과 정종열 위원님께서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르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앞부분의 추진 경과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계와 국민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처음에는 일반회계 국고로 문체부와 예경 그리고 기재부가 논의를 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다가 국고의 부족사항으로 인해서 문예기금으로 변경되었고 2020년 7월 제283차 위원회 전체 의결을 통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공연을 관람하는 할인쿠폰 형태로 약 144억 원의 티켓을 구입하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1차 추경 운영비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방식을 통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6일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때 저희가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가 총 6개의 할인쿠폰을 전면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2020년 11월부터는 이 사업들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2021년도로 예산을 이월시키고 2021년 2월 9일에 사업기간연장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1년 6월까지 사업계획이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이제 변경(안)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상사업은 오프라인 공연(대면공연)에 한해서 티켓을 발급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재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온라인 공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변경건의 가장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회계연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2가지 내용이 이번 보고안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변경하면서 사무처가 나름 여러 가지 위험성을 분석하였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오프라인이 재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만 했을 때 온라인티켓으로만 할인쿠폰이 전면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지만 진행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과하게 온라인 쪽으로 편중 되었을 때는 일정정도를 쿼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공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올해 당장 새로운 공연이 온라인 공연화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심의물등급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9월은 되어야 새로운 작품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 제작된 공연 중심으로 온라인 공연들이 재기될 수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부장님, 보고를 요약해 주세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그런데 그럴 경우 연극과 뮤지컬 중심으로 많이 제작되어져서 특정 장르에 티켓이 판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도 진행되는 상황을 모니터

링 하면서 장르별 쿼터제를 기본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공연에 한해서 할인권이 집중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정수급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쿼터제를 둘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예매처에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티켓은 144억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경상비 14.8억 정도에 대한 내역 가운데 일부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보고 드리고 사무처가 지원계획 변경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위원장님 결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부탁드립니다. 모든 보고는 3분 이내로 요약해 주세요.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내에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보고되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게 보고를 하면 핵심이 깨지는데요. 온라인으로 확산한다는 것이 중심이 될 텐데요. 거기에 관해서는 공연 쪽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의 1차적 판단이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확인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없으시면 보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이어서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인데요. 오영주 원장님이 보고를 하실 겁니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87페이지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 국고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과를 보시면 작년에 3차 추경을 통해서 인력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기간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간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내용은 공연예술분야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3,500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50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336억 원입니다. 예산이 인력지원사업에 315억 이고 관리운영비에 21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방향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지원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도 확대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공연을 개최하거나 창작 작품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대상도 공연 실연인력과 공연 지원인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공연 개최나 제작준비, 소규모 프로젝트, 워크숍, 공연연습, 온라인 영상제작, 리서치, 레지던스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결과물에 대한 보고와 공개발표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원 추진체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문체부가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저희가 교부가 교부를 받아서 5개 협회 쪽에 저희가 재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

면 협회 쪽에서는 공연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공연단체나 개인이 인력선발을 직접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선발에 대해서 협회 쪽에서 각각의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고용계약을 공연단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는 이유는 공연단체 쪽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에 대한 관리를 직접 하게 되면 공연단체 쪽에서 4대 보험이나 e나라도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쪽에서 직접 4대 보험을 전부 다 관리하고 협회 쪽에서는 직접 계약을 함으로 해서 e나라도움을 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5개 협회로 연극협회, 뮤지컬협회, 음악협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무용협회를 통해서 사업의 재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예산 배분 내역은 92페이지를 보시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극협회는 75억 7,000만 원, 한국뮤지컬협회는 38억 9,500만 원, 음악협회는 103억 6,000만 원, 전통예술진흥재단은 66억 4,500만 원, 한국무용협회는 48억 3,000만 원의 예산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지원에 대한 것은 공연단체에 대한 비율을 참고해서 인력배분을 추진하였습니다.

93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일정은 4월부터 6월까지 사업 공모 및 선정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사업수행을 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인주 위원 : 지금 보면 그동안 항상 예술가들의 창작 결과물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면서 인력에 투자하게 되는 결과가 있어서 그 부분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원내용에서 결과물에 대한 보고 및 공개발표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까?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그렇습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협회에서 진행하면서 협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제출하고 보고서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작실연에 대한 결과발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단체 쪽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발표가 공개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사전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은 점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방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지정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식 자체가 얼마나 유효한 것이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냐? 더 좋은 대안은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늘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전질의가 나온 것이니까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보고내용 중에 중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공연단체 쪽에서

직접 사람을 뽑고 공연단체가 직접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일자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3,500명을 필히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3,500명에 대한 정산을 전부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개인단체라든지 소규모 단체들이 직접 e나라도움을 통해서 지원정산을 해야 하고 4대 보험도 소규모 단체 쪽에서 전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소규모 단체 쪽에서 인력채용을 한 사람들을 협회를 통해서 계약체결을 하면 협회가 전부 대행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쪽에 그러한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공연단체나 개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전부 다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지원제도라고 하는 면에서 손을 볼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 문제가 지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유란 위원 : 제가 사전질의를 드렸는데요. 원장님의 설명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개별예술단체들의 행정편의에 대한 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장르별 협·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체부와 저희가 소통해서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사실 이것이 처음 올라온 것은 아니고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문체부에서는 아마도 각 장르별 협·단체와 이미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설계가 끝난 것을 위원회로 넘겨서 저희는 처리를 해 주는 역할에 가까웠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기에 정부는 장르별 협·단체와의 소통에 의해서 이것을 설계했다고 이해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했다고 인식하는 게 가장 큼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대응하는데 있어서 약간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겁니다.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일단은 작년에 1차적으로 긴급지원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협·단체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전부 다 인력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부터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계약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단체가 아니라 다른 재교부 단체가 하게 되면 작년의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저희 쪽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시간이 미뤄질 수가 있고 지금 현재 6월까지 계약하는 것도 일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 올해 추경이 결정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원장님, 실무의 어려움이나 추진에 복잡함도 있겠지만 위원회에서 묻는 건 제도의 강화일겁니다. 그래서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저희가 어떻게 낼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대안이 없다면 천천히..... 이 사업을 당장 세우고 바꾸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것은 지속사업은 아니고 올해까지만 될지 아니면 내년까지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단체들로 하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 면에서 실효성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유란 위원 : 제가 회의 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논의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의견을 적어낸 이유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는 어떤 입장인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상자도 많고 예산도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연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예술지원 영역에 집어넣는 이유는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력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인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인력개발원도 강화하고 일자리 관련 부서도 만들고요. 이렇게 시스템 대응을 하면서 실제 사업이 뒤쫓아 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위원회는 명확합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복잡한 국비 시스템으로 대규모 예산을, 올해도 336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꾸려나가는 한계는 있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의 영역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계속해서 확장되며 계속해서 다양한 제도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님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남요원 감사 : 정유란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판단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신 지점은 현재 재교부를 하고 있는 협·단체들에 대한 신뢰부분, 시장의 신뢰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그동안 협·단체들이 운영되어 지는 과거의 전례, 특히 한국연극협회의 도덕적 추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저희 감사 트랙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업무추진 팀에서는 말씀 그대로 지속되어질지 안 되어 질지? 코로나라고 하는 추경에 의해서 편성되어진 국고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00억이 넘는 예산이 현장의 예술가들에게 직접 지원된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 만약 이게 왜곡되거나 잘못되어지면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박종관 위원장 : 감사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보고안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인력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체육기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심의 결과보고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보고는 어느 분이 해 주시나요?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할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신가요? 나주인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아닙니다. 서울의 도서보급사업 사무실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온라인 회의가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있든 접속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체육기금으로 진행되고 7개월에서 8개월 동안 문학분야 작가들이 일할 수 있는 45개 도서관을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억 원이고요. 자료에 보시면 선정내용과 심의경과 등이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요청드렸는데요. 이시백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선정된 작가들한테 원래 취지에 맞는 업무 외에 통상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안내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도서관 사업은 사업공고 단계에서 “작가에게 창작관련 활동시간 1일 4시간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독립적 창작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있고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정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안내지침을 재차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정도서관의 연중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도 참여 작가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은도서관들이 저희 사업에 매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서관에서 일부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사전안내 그리고 관련 지침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도 경주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열악한 도서관에 상주하는 작가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유관의견수렴을 강화해서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격과 역할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후에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이시백 위원님께서 사전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문학지원부장께서 같이 요약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시백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상주작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에서 일상적이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업무, 이를테면 대출업무나 청소나 도서 정리, 그밖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교육이나 관련 강좌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화하는 내용들을 마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이나 모니터링 평가, 참여 작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시작한지 5년 되었고요. 이 사업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강화된 몇 개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문학이라고 하는 지원액이 크지 않은 곳에서 인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하는 귀중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정정숙 위원 :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레지던시 사업을 할 때도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있는 것처럼 ‘문인이 상주하고 지역주민 또는 청소년의 문화향유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함으로써’라고 하는 문학수요자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상주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을 강제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일상적인 대출이나 청소가 아니라 체험프로그램 자체가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작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체험프로그램 자체를 몇 회 정도로 한다거나 몇 달 전에 기획을 완료한다거나 아니면 작가와 반드시 상의를 해서 합의 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몇 가지 방안을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마련해서 작가들이 창작을 하는데 방해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서관을 선정하고 도서관에서 작가를 채용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내용을 포함해서 근무조건 내용을 여기에 참여하는 상주작가와 합의해서 해당 내용을 계약서로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연 등 수용하기 힘든 수준으로 강요되는 사례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다만, 이 사업이 상주작가의 창작활동과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향유프로그램 운영까지 양쪽을 같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과 작가의 갈등이 매년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내용은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 사안도 함께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이 현황과 현안 보고를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에서 요청해 주셔서 오늘 위원회 때 예술기록원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아까 3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박종관 위원장 : 조금 더 보고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현안과제니 더 쓰셔도 됩니다.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안녕하세요? 아르코예술기록원장 임주연입니다.

위원회에서 아르코예술기록원 현황과 현안보고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온 다음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와 104페이지는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연혁과 예산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성과와 주요

현안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성과는 그동안 부족하지만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자체사업으로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하고 공연영상콘텐츠 제작사업을 하고 2011년부터 한국 예술디지털아카이브도 운영하면서 많은 온라인·오프라인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106페이지의 주요 현안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3개 있는데요.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카이브 같은 경우 수장 시설이 핵심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수장고가 3개 있고 그 중에 한 군데의 수장고는 항온항습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가 있는 수장고 2곳도 저희 예산의 부족으로 겨울철에는 항온항습기를 끕니다. 그리고 밤에도 더운 여름철이 아니면 온도를 높이기도 해서 전기료를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매우 열악하고 이러한 수장 시설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수장고가 이미 꽉 찬 상태라서 올해 이미 2만 건 이상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올해 말 내년 초 정리를 해서 5만 건 정도의 자료를 추가 수집할 예정인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수장고 공간 정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예산이 거의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 추경을 계기로 저희 예산의 변경이 있었고요. 추경을 계기로 저희가 생각만 하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만 점 수준의 디지털화를 진행했고 기록원이 생긴 다음에 한번도 하지 못했던 복원이라든가 자료 클리닝 작업을 처음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2021년도에 일자리 예산이기는 합시다만 7억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경 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학예사가 부족한 영역이 있고 아키비스트도 부족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오프라인 이용자 서비스가 매우 낙후된 수준입니다.

10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개선하고 잘해야 됩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 내부적으로 단기와 중장기적인 큰 방향성을 기재를 간단하게 해놓았고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틀리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면적이고 집중적인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와 컬렉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술기록원에서 볼 수 있는 특화 컬렉션을 구축하고 예술사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미흡했던 활용 부분에 중점을 뒀서 전시나 학술회의 등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자료의 가치를 알리고 오프라인 공간도 시설 최적화를 통해서 적어도 찾아오고 싶은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예술자료를 통합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문화예술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어도 컴퓨터, 핸드폰 등 온라인 매체에 적용해서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라키비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일단 만들어야 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도 조금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페이지 단기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유 컬렉션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107페이지와 108페이지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사업적 측면에서는 국가문화예술 아카이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을 연도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간단하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인프라 외에 오프라인 인프라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공간 부분이 심각합니다. 저희 현재 공간은 10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000평 규모의 공간인데 대학로와 서초동을 다 합친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필요한 공간은 수장고가 더 필요하고 보존, 복원 시설이 필요하고 전시와 체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체별 수장고도 필요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규모를 약 3,000평 규모로 잡아놨고요. 입주해야 될 주요 시설들은 전시실과 체험 공간, 기록열람실, 수장고 그리고 기록보존센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간조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저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검토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말에 문체부 시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가 그 공간에 입주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제안서를 문체부에 제출했구요. 그리고 저희가 2안으로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을 써 놓았는데요. 사실 그 공간은 당초 1992년에 설립되었을 때부터 정보관 건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도 높고 하중도 적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는 기관 간 협의와 문체부의 중재를 통해서 그 건물을 아예..... 지금 현재 3층 건물 중에 2층 절반과 3층을 쓰고 있는데요. 그 건물 전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검토 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3안은 최근에 문화부 담당사무관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석관동의 한예중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의릉 능역에 위치하여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고 송파구와 고양시가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의릉 복원을 해야 되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전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담당사무관이 그냥 특 던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실제 가능성 여부를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문체부도 예산 작업 중이라서 실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나지 않아서 5월 중에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110페이지 표가 저희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별 소요 면적입니다. 기록원이 어딘가에 만들어지고 몇 십 년 정도의 공간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최소 공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종열 위원님과 홍태립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얘기되고 당인리 복합문화공간과 석관동 등에 대해서 저희가 문체부와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를 진행하고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실무검토 진행사항을 추가로 보고 드리고 벽에 부딪치면 제가 SOS를 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을 먼저 하나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오늘 논의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간담회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주실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당위성, 취지 등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전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석관동 같은 경우도 문체부 주무관과 얘기를 해서 이런 수준으로 예술 아카이브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도 없고 전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이원재 위원님 말씀대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논의의 귀결지점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당인리만 말씀을 드렸지만 국립도서관 문제도 있었고요. 심지어 성남 폐수종말처리장을 들렸고 골프장 유희공간에 신축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중에 나왔던 석관동 한예종 자리에 들어가자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어떤 전략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가능한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그냥 잘 진행하자는 것으로 논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페이퍼나 보고를 들었을 때 최소 수준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적혀 있지 않아요. 아카이브는 계속 늘어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하려면, 예술위에서 수장고의 전기세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수준이라면 다음 단계에서 어느 정도가 최소 수준의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야죠. 있어야지 우리가 국회든 문체부장관이든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간도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교섭이나 캠페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번 논의와 비슷한데 그런 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면 쫓아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고요.

박종관 위원장 : 임 부장, 지금 이원재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관한 내용 보장은 가능하죠?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예, 가능합니다. 일단 공간의 구성은 110페이지의 시설별 소요 면적(안)에 보시면 필요 시설들이 나와 있고요. 최소 예산은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습시다만 약 500억 규모입니다. 2019년에 저희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나 추진했는데 그 연구용역 상으로 약 500억 규모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일단 위원회에서는 자료 보장 요청정도로 생각하시고 간담회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보태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요원 감사 : 지금 현재 이원재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전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법정 이사회에서 실무와 협의해서 전략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프로세스의 과정은 기재부를 설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유희시설 또는 문체부가 현재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동극장이라든지 (1)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 예를 들어 (3)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2018년도에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를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 130억을 지원했거든요. 그 예산 130억을 지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학교 이전 기간을 10년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학교를 이전하겠다. 그리고 문화재청을 설득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이전하는 것을 뒤로 연장하겠다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예를 들어 실무에서 제일 빠르게 문체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능한 유희 시설이 어디가 있는가? 문체부가 계획하고 있는 리모델링 시설들이 어디에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파주의 출판산업단지 안에 문체부가 시설

을 지원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실무에서 정리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1차적인 것은 차관과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관을 충분하게 설득하고 안을 제시해서 기재부의 예산을 투입 받아서, 신규 재원으로 500억 원을 받아 진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문체부 안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만들어가는 게 현재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전략의 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예술자료원이 독립되었다가 다시 위원회로 합쳐지는 과정도 겪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생긴 굉장한 불이익도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 소유였던 건물에 10억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보강해서 5월 간담회 때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하자고 제의를 드립니다. 제 의견에 이견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2022년 회계연도 주요 법정사업평가 결과를 손에 쥐고 있는데 이것은 2021년도 예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부로부터 요약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사업평가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사업자율평가, 보조사업연장평가, 기금존치평가가 있는데요. 존치평가는 3년마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보조사업연장평가 2개 종류를 수감했습니다. 그 중에 재정사업자율평가 같은 경우, 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과 예술향유기회확대사업은 100점 이상의 보통 혹은 우수의 평가를 받아서 문제가 없고요.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예술의관광자원화 문제가 부각돼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연장평가는 세부사업 단위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올해 예술의관광자원화가 평가결과 감축·변경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이유는 사업집행률도 집행률이지만 예술의관광자원화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재교부 나가는 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재교부 나가는 사업, 전북문화관광재단 등에 나가는 재교부성 사업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과 사업의 형태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미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예산 감액 편성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있었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총리실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위원회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고요.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은 최종적으로 지방이양 결정 논의가 되다가 지난주에 다시 결과를 받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지방이양을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협의체 운영과 아르고공공예술사업은 감액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수립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지원 하는 사업은 그 기관도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고 우리 기관도 문체부와 협의 등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이관·편성하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이 평가결과는 기재부에서도 계속 고려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1년도에 받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대비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사업관리 체계를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연장평가 관련해서는 이런

재교부성 사업은 계속 중기적으로 일반회계로 이관·편성을 하고 사업본부와 사업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실이 연간감사 보고를 해야 할 텐데요. 이것도 시간여건상 부족하면 간담회 때 연이어서 보고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간략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예, 감사실장 김기용입니다. 우선 감사실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가 1년에 1~2번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취지와 2020년도 감사결과 2021년도 감사방향에 대해서 큰 방향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드렸던 연말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근거입니다.

보고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감사와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기관경영에 참여하시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이사님들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그리고 현황을 브리핑하고 개선점 등 기관의 경영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보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감사 결과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예술위 내부에서도 추정 3차까지 진행된 여러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곳곳에서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사계획을 당초 24건에서 10건으로 축소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건수는 연도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020년은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기관의 현황과 공직기강 중점의 특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 인사제도, 급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대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2000년도에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고요. 저희는 그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보조금 부정유용 단체에 대한 적발·조사·점검 등을 만히 해 왔습니다. 2020년도에 2개 단체 1,300만 원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현재 3개의 보조금 부정수급단체를 조사 중에 있고요. 1개 단체는 현재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작년부터 공공재정환수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유용에 대한 정부의 점검 강화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공공재정환수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고 브로슈어도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감사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사업의 체계도 개선될 부분도 있고요. 홍보나 기존에 운영되었던 사업방식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는 오랫동안 저희 감사실의 인력이 없다보니까 타 공공기관, 준정부, 심지어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감사건수가 적은 상황입니다. 2019년도 국회 예산처의 데이터를 보면 준정부 공기업은 연평균 29.6건, 기타 공공기관은 22건 대비 저희 예술위는 17건입니다. 이것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 다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소 연평균 15회 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감사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감사를 하는 목적은 단순하게 지적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법에 정해졌던 집행기구 운영과 사업에 대한 안전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감사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은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정책감사와 성과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3건 정도의 정책, 성과 감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이사회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예술위에 대한 청렴도

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4~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4년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행인 것은 작년부터 다시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비교대상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렴도 안에는 내부에 대한 청렴도도 있고 외부에 대한 청렴도도 있습니다. 외부는 주로 내부 임직원들의 금품, 향유 등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등 이해관계자들까지 집중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양한 부패방지 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고를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 감사실시 현황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쪽에는 실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상, 행정상, 신분상 등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재정상 조치는 2019년도에 5억 정도의 회수 조치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2,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분상은 30명, 행정상은 16건의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인데요. 감사결과 처분 상세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에 보고를 1~2번밖에 못한다고 해서 중간에 발언을 끊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 해도 상임감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부서와 저희 위원회 간에 기구상 견제를 하거나 상호 보완을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와 우리 위원회 사이에 업무협조나 공조 등은 무엇보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활동 보고는 아무리 급하게 넘어가도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당장 월요일부터 거의 대토론회에 해당하는 지역순회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태림 위원장님께 간단히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태림 위원 : 지역간담회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은 크게 4가지 정도만 압축적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드릴 것은 온라인 공론장 관련한 것인데요. 올해 저희가 임시 온라인 공론장을 홍보팀과 협업해서 7월부터 5개월 정도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론장 운영을 보조해 줄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필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 필자들에게 드린 원고료 예산 등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임시이기 때문에 현장소위원회 위원, 민간위원 4인이 한 달에 한번씩 편집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올해는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엔 온라인 공론장이 정식으로 출범하면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편집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회의사레비가 책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창호 부장님께서 기초부 쪽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요. 가능하면 확보가 될 수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도 예산에 정책연구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온라인 공론장, 그러니까 2021년도 위원회 운영방안 워크숍을 할 때도 제안이 되었던 사항이라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요. 올해 임시 공론장을 열게 되면 내년에 정식으로 온라인 공론장이 출범했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이어 나갈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2022년 예산에서 한도 외 예산으로 제 기억으로 1.5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한도 내로 조정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권역별 지역간담회 개최 내용입니다. 아마 자료의 138쪽을 보시면 내용이 있을 건데요. 다음 주 5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저희가 9개 권역을 돌면서 지역간담회를 진행합

니다. 이번 지역간담회를 마치면 저희가 100명이 넘는 전국의 예술인들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원사업이라든지 심의제도, 중앙·광역·기초 간에 거버넌스 그리고 창작 활동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측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예술위나 한지엽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들 그리고 문체부 등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들, 그리고 예술위가 현장소통 소위원회나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서 풀어야 할 것들을 도출해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차후에 어떻게 다루어낼지에 대해서 위원회와 사무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요. 이번 지역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유형화 하고 정돈하려면 사후보고서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혁신부 쪽과 더 논의를 해 보고 구체화 되면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부에서 5월, 6월에 저희가 진행할 지역별간담회 관련해서 언론이나 예술위 자체의 채널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심층기사가 나갈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소통 소위원회로 들어오는 정책제안 대응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의견서에도 적어놨는데요. 현장소통 소위원회로 들어오는 각종 제안사항 중에 저희와 직접 관련된 것들은 사무처 관련 부서가 1차로 내용을 검토하고 초안을 만들면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최종 검토를 해서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업무가 적지가 않은 터라 사무처의 업무가 애초에도 과중한 상황인데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업무까지 다루게 되어서요. 한편으로는 “왜 이런 업무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지는 한데요. 어쨌든 예술현장에서 갖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 있기도 하고 예술현장에서 저희가 다시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가는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 소위가 1년, 2년, 3년으로 넘어오면서 해 왔던 일들이 누적되면서 체감은 잘 안 되실 지도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예술위원회가 신뢰를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현장과 소통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해 나가면 어떨까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소위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박경주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주민예술가 비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안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예술위가 당장 직면한 사안이나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술현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의외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구나.”라고 하면서 좋은 평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는 위원회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공청회에 관한 자세한 브리핑은 박경주 위원님이 추가해 주시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박경주 위원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장 소위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배려하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공청회는 잘 마쳤고요. 지금 공청회에서 나온 성과는 법무부 담당자가 오셔서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후에 법무부에서 내부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제가 법무부에 다녀왔고요. 거기에서 2가지 정도 내부적인 법안과 관련된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

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갔을 때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의 사무관
께서 다음 주 초에 저에게 회의록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간담회 때 시간
이 되면 보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4가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나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는 문건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1개의 보고
사항과 관련해서 흥태팀 위원께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나요? 없으면 접수를
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11개 보고사항 모두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예술과 기술 융복합지원사업 심의 등을 진행하는 심의위원을 추
천해 줄 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담심의위원을 구성할 위원이 필요한데요. 저희 내
부에 예술과 기술 융복합 전문위원이 계시는 건 아니니까요. 장르 일반 쪽에서 이원재 위원
님이나 정정숙 위원님이 맡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실무 쪽의 의견으로 올라와 있는
데요. 두 분을 지정할까 합니다. 원래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이므로 두 분
을 지정할까 합니다. 다음 주 초에 담당부서인 미래사업부에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접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논의사항으로 넘어갈
까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논 의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마지막으로 지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팝업씨어터 소송 관련하
여 후속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할까 하는데요.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부터 비공개로 논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부터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5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류재수 부장께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5월 전체회의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예술가의 집으로 예정되어 있고 간담회는 5월 13일 목요일 10시쯤 개최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일정이 어떻습니까?

(5월 전체회의 및 간담회 일정 조정)

7.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많은 안건 논의로 인해서 지치실법한데 위원님들께서 긴 시간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의결사항은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보고사항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요. 논의사항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회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덕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직사회 특별 방역기간 조치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급하게 전환하여 회의를 하게 된 점이 송구스럽습니다.

건강하시고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0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회의종료)